

典經에 나타난 道通眞境

-原理와 條件을 중심으로-

高南植*

目次

I. 緒言	1. 解冤과 調和
II. 道	2. 合德과 造化
1. 神道	3. 相生
2. 陰陽	4. 開關과 原始返本
III. 道通眞境의 條件	IV. 結語

I. 緒言

道通眞境은 九天上帝의 天地公事를 따라 天地人 三界에 道가 통해 새롭게 열려진 宇宙를 가리킨다.

도통진경에서의 道는 구천상제께서 신축년(1901년) 母岳山 大院寺에서 49 일간의 不飲不食으로 여신 天地大道이다. 이 천지대도는 천지인 삼계에 모두 통하는 것으로 기존 선천 질서가 아니라 開關長인 구천상제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前代 未曾有의 새로운 開關에 의한 後天의 새 질서이고 새 원리이다.

도통진경의 의미는 단순한 成句의 정의만으로도 난해하고 심오한 것임이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사실이다. 이에 本考는 연구의 초점을 宗旨의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도통진경이 宗旨를 결론짓는 의미라는 점에 맞춰 도통진경을 고찰하였다.

주지의 사실로 도통진경은 다른 세 개의 成句인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과 밀접한 연관성속에 先後와 因果관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이라는 각각의 종지내용이 특유의 원리를 만들며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도통진경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도통진경에 관한 연구는 前者의 의미를 총괄해 성립되는 종지의 궁극적 결론이며 목적이라는 점에 귀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종지에 관한 연구에서 문제시 된 것은 陰과 陽, 神과 人이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점이었다. 필자는 대순사상논총에 게재된 선행연구에서 陰陽과 神人을 合德, 調化, 解冤, 相生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통진경이 종지의 타 세 成句와의 유기적 연관성하에 종지 내의 세 개의 成句를 종합해 귀결된다는 점에 입각해 논지를 전개하였다.

또한 필자의 拙稿인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에 관한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도통진경의 의미를 道, 道通眞境의 條件이라는 목차속에서 언급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 道

1. 神 道

대순사상에서 道는 神道¹⁾와 통하며 천지인 삼계의 일들이 모두 神道에 근

1) 神道에 관한 易에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神明之道 (易觀) 觀天地神道 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 <疏> 神道者 微妙無方 理不可知 目不可見 不知之所以然而然 謂之神道(道教大辭典, 李叔還 編纂, 巨流圖書公司 491쪽)

원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神道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예시 73절)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神道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三界公事이니라(공사 1장 3절)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끝임 없이 저질러 神道の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교운 1장 9절)

구천상제의 천지공사가 음에 속한 神界의 神道를 근본으로 萬事가 진행되고²⁾ 일(事)이 구천상제의 삼계대권에 의하여 用事된다.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되는 연고이니라” 말씀하셨도다.(교법 3장 1절)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 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이니라.(교법 3장 4절)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예시 30절)

神道는 玄妙不則한 대소의 일을 모두 이루는 것으로 無爲로 造化됨을 보

2)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제생 43절) 김 광찬과 신 원일이 상제를 모시고 계시던 정미년 정월 어느 날 상제께서 그들에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교운 1장 19절)

여준다.³⁾

三界와 神道와의 관계는 선천의 천지인 삼계 질서 혼란이 신도의 권위추락에 있고 (교운 1장 9절) 문제해결의 단서가 신도에 있음이 나타난다. (공사 1장 3절) 후천선경 건설 후에도 신도에 의해 삼계의 일이 造化되고 도수와 운수가 완벽히 짜여져 삼계가 운영됨을 알 수 있다.⁴⁾

또 神道を 근본으로 仙·佛·儒法의 정수⁵⁾와 세계 각 지역 민족문화를 모두 통일해 천지공사가 이루어진다.⁶⁾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文化的 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샐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예시 12절)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교법 3장 23절)

이제 동서양이 교류되어 여러 가지 主義가 일고 허다한 단체가 생기나니 이것은 성숙된 가을에 오곡을 거둬 결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교법 3장 38절)

한편 神道에 따르는 신계 기구가 인계 일에까지 주요 작용을 함도 보인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 공사가 종결되면 온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부터 상제께서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시고는 그것을 불사르셨도다.(공사 1장 5절)

3) 拙稿 「선천 현실에 대한 천지공사론」, 『大巡論集』,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PP 237~243

4)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神道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예시 9절)

5) 예시 73절, 예시 13절

6) 한편 西敎에 대해서는 神道와 관련 다음의 내용이 있다.

서교는 신명의 박대가 심하니 감히 성공하지 못하리라.(교법 1장 66절)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 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예시 10절)

삼계 전체적인 면에서 신의 존재영역인 천지인 삼계내의 신도의 영향을 인계가 긴밀히 받아 공존해 하늘(천)이 인을 태어나게 하며 그 인은 신계 선령신들의 6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과 인(자손)이 연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를 “하늘이 사람을 낳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려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교법 2장 36절)

이것은 천계가 신도의 작용하에서 인계와 연관된 것이다.

천도의 작용으로 인계 탕의 선과 걸의 악이 나타났음과 人 各自가 천지기의 작용속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보인다.

桀은 그때를 惡하게 했고 湯은 그때를 善하게 했다.天道가 桀에게 惡을 가르쳤고 天道가 湯에게 善을 가르쳤다(桀惡其時也 湯善其時也 天道教桀於惡 天道教湯於善)(공사 3장 39절)

천하의 형세를 아는 자는 천하의 生氣를 받고 천하의 형세에 어두운 자는 死氣를 받는다 (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暗天下之勢者 有天下之死氣)(행록 5장 38절)

사람이 사는 세상에 무엇이 재미인가. 衣와 食이라 말하고 衣食다음에 色이라 한다. 그러므로 衣食色의 道에 이르러서는 각기 天地의 氣를 받는 것이다. 惑世誣民하는 者나 남을 속여 物을 취하는 者도 역시 天地의 氣를 받는 것이다(人生世間 何滋味 曰衣 曰食 衣食然後 曰色也 故 至於衣食色之道 各受天地之氣也 惑世誣民者 欺人取物者 亦受天地之氣也)(교법 4장 47절)

또한 아래 구절에서 人界 智者중 大智를 가진 자는 天地와 같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春夏秋冬의 기운을 소유해 만사를 임의대로 쓸 수 있음을 보여준다.

智者는 天地와 더불어 같아 春夏秋冬의 氣를 갖고 있다. 每事를 任意대로 쓰니 이것을 일러 知慧勇力이라 한다. 大智는 天地와 더불어 같아 春夏秋冬의 氣를 갖는다. 그 다음의 智者는 日月과 같아 弦望晦朔의 理致를 갖고 또 그 다음의 智者는 鬼神과 같아 吉凶禍福의 道를 갖고 있다.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大智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其次 與日月同 有弦望晦朔之理 又其次 與鬼神同 有吉凶禍福之道)(제생 43절)

윗글은 인간 완성의 단계인 大智를 소유한 사람도 신도의 질서하에 작용하는 천지 기의 영향과 밀접함을 시사한 것이다.

일이라는 것은 마땅히 旺盛함이 天地에 있다. 반드시 人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人이 없으면 天地도 없다. 그러므로 天地는 人을 낳아 쓴다. 사람으로 태어나 天地가 人을 쓰는 때에 參與치 않는다면 어찌 가히 人間의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 無人 無天地 故 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교법 3장 47절)

윗 구절에서 일이 마땅히 천지에 있지 반드시 人에게 있지 않다는 점과 천지가 人을 낳아 쓰는 본질을 알아 人은 天地가 사람을 쓰는 때를 맞아 주체적 각성으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으로 삼계의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신도의 작용아래 진행됨을 보여준다.

나아가 天地用人的 때에 修心과 修身으로 人은 천지 성공하에 주어지는 복록과 수명을 받아야 되는 면까지 담고 있다.⁷⁾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7) 선천의 성사재천의 질서가 바뀌어 후천에서는 神道の 기틀하에 人尊과 成事在人的 時運속에서 三界내에 道通君子의 출현이 있게 되며, 道通은 心身의 修養과 修鍊을 통해 神과의 調和하에 造化를 이루게 된다.(拙稿 典經에 나타난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 제3집, 대순사상학술원, 창문사, 1997, 444쪽)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예시 30절)

또 인세의 선의 포태, 불의 양생, 유의 욕대와 후천에 새로이 출현될 진리의 冠旺이 각각 천지의 허무, 적멸, 이조, 도술의 기운하에 있게 된다.⁸⁾ 특유의 역할을 맞춰 法術의 출현이 일정한 원리하에 天地의 氣를 받는 神道の 작용을 따라 시운적으로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도의 틀속에서 造化되는 천계 지계 인계의 관계를 알아본다.

三界은 天界 地界 人界로 구분되며 宇宙를 지칭하는 의미이다. 천,지,인 삼계는 신계 인계로 또한 대별해 생각할 수 있다.

神界는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다」 「사람마다 그 님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는 내용처럼 천,지,인 삼계와 범신적이며 다신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교법 3장 2절)

사람마다 그 님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교법 2장 17절)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神應되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23절)

따라서 신계는 천계와 지계 그리고 인계와의 총체적 관련하에 그 모습의

8) 천지의 허무기운을 받아 선이 포태하고 천지의 적멸기운을 받아 불이 양생하며 천지의 이조기운을 받아 유가 욕대한다. 관왕(반서체) (부도생략) 도술 허무 적멸 이조 [受天地之虛無 仙之胞胎 受天地之寂滅 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 儒之浴帶 冠旺(反書體) (符圖省略) 兜率 虛無 寂滅 以詔] (교운 1장 66절, 현무경 24면)

일면을 투영해 볼 수 있다. 천계와 지계가 각각 신계와 유기적 관계임이 지계 지하신의 천상 묘법 전래로 나타난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교운 1장 9절)

먼저 천계에 연관된 신계를 보면 玉京, 玉樞, 冥府등의 기구가 존재하고⁹⁾ 이곳에서 神政과 神事が 이루어짐을 알수 있다.

상제께서 “敎中이나 家中에 분쟁이 일어나면 神政이 문란하여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재앙을 해소하였노라”고 이르셨도다.(행록 3장 8절)

“각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天上公廷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교운 1장 33절).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 (교운 2장 42절, 음양경)

지계의 신들은 어떤 지역¹⁰⁾이나 인간생활의 장속에서 物象的이나 氣的으로¹¹⁾ 人界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삼계내에 존재하는 신들은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따라 조정돼 冥

9) 天上玉京(교운 2장 42절)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예시 10절) 玉京玉樞(교운 2장 42절) 四十八將을 늘어세우고 옥추문을 열 때에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우리라.(예시 78절) 玉樞統符(符圖中) (교운 1장 66절, 현무경 25면)

10) 공사 3장 22절, 공사 3장 39절, 교운 1장 9절, 교운 1장 63절

11) 左旋 四三八 天地魍魎主張
九五一 日月窳王主張
二七六 星辰七星主張(교운 1장 44절)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和氣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교법 1장 42절) 萬物資生 羞耻放蕩 神道統 春之氣 放也 夏之氣 蕩也 秋之氣 神也 統以氣之主張者也 知心大道術(교운 1장 44절)

府, 天地, 日月, 星辰 등 정해진 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주장한다. 그 예로 조선 명부는 전명숙, 청국명부는 김일부, 일본명부는 최수운 그리고 천지는 魍魎, 일월은 竈王, 성신은 七星이 주장하게 된다.

상제께서 김 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朝鮮冥府를 全明淑으로, 淸國冥府를 金一夫로, 日本冥府를 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불사르셨도다.(공사 1장 7절)

左旋	四三八	天地魍魎主張
	九五一	日月竈王主張
	二七六	星辰七星主張 (교운 1장 44절)

한편 인계와 신계의 관계는 음양의 대대성하에 삼계에 공존하는데¹²⁾ 인계와 신계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계와 신계의 관련성은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교법 1장 54절)

어느날 종도들이 상제를 뵈옵고 “상제의 권능으로 어찌 장 효순의 난을 당하였나이까”고 물으니라. 상제께서 “敎中이나 家中에 분쟁이 일어나면 神政이 문란하여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재앙을 해소하였노라”고 이르셨도다.(행록 3장 8절)

와 같이 나타난다. 이것은 인계 일이 신계에까지 영향을 주고¹³⁾ 인계 일의

12) 神人以陰陽成造化 (교운 2장 42절, 음양경)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제생 43절)

13)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교법 1장 25절) 신은 사람이 먹는 대로 흠향하니라.(교법 1장 49절) 전쟁사를 읽지 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神應되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23절)

결과는 신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라 인계에 구현됨을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신계의 인계에 대한 영향은 신이 인의 倫理道德的인 면을 판단해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교법 1장 29절)

지금은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장 5절)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교법 3장 24절)

또한 신은 은혜를 갚거나¹⁴⁾ 신계 신들이 인계에 작용하여 그 소망을 이루려는 면도 있다.¹⁵⁾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종도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느니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珠樓寶閣 십만간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리라.”(교법 3장 44절)

14) “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때 약에 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 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 자가 있되 그 공덕을 양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 방아에 庚申年庚申月庚申日姜太公造作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예시 22절) 이외 교법 3장 22절이 있다.

15) 교법 2장 14절, 교법 2장 36절

위에서 상대적으로 人의 복록과 소망이 九天上帝의 판단하에 신계의 관련 된 신과의 관계속에 긴밀히 연관돼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各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셔도다. (교운 1장 33절)

이처럼 인계와 신계는 「신사가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진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신사가 이루어진다.(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는 내용처럼 상호 유기적이고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삼계속에 주재하는 것이다.

2. 陰 陽

道는 대순사상에서 陰陽과 관련돼 음양 두 氣의 對代的 관계속에서 우주 만물이 변화와 造化를 이루게 된다. 그것은 음양에 대한 經으로서 발표된 「陰陽經」의 구절에서 나타난다.

천지의 일은 모두 이 음양가운데 성공이 있고 만물의 이치도 모두 이 음양가운데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인도 음양으로써 조화를 성공한다.(天地之事 皆是陰陽中有成 萬物之理 皆是陰陽中有遂 天地以陰陽成變化 神人以陰陽成造化)¹⁶⁾

위내용은 천지만물이 음양으로 성공하며 우주안에서 신과 인간이 음양으로 造化를 이룸을 보여준다.

또한 음과 양이 서로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의 관계를 「음양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늘은 땅의 감화가 없으면 하늘 아래로 펼수 없고 땅은 하늘의 공력이 없으면 땅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신은 사람이 없으면 후에 의탁할

16) 교운 2장 42절 : 『陰陽經』

곳이 없고 사람은 신이 없다면 앞에서 인도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신명은 인간을 세우고 인간은 신명을 세운다.(天無地化 無布於其下 地無天功 無成於其上 天地和而萬物暢 天地安而萬象具 神無人 後無托而所依 人無神 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族人 人族神明)17)

음양의 어느 한쪽이 없이는 천지간의 모든 것들이 성공도 없고 귀의할 곳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주 만상의 원리가 음양관계속에서 존재성을 갖게 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음양관계에 맞춰 선천문제가 진단되었음도 등장한다. 천지공사를 역사하는 중요한 부분인 선천 문제의 진단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음양의 불균형에서 파생됐으며 결국 신계와 인계사이에 존재해온 음양적 常道를 역시 무너트렸다.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균형을 이루고 신계와 인간계의 상도가 음양으로 조화를 이루어 존재하게 되는데 인간들의 교만과 자연정복으로 인해 음으로서의 신의 세계의 권위가 떨어졌으며 이로써 신계와 인계간의 음양조화의 常道가 무너진 것이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東土에 그쳐 母岳山 金山寺 三層展 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年을 지내다가…….』18)

17) 교운 2장 42절 『陰陽經』

18) 교운 1장 9절

『전경』은 선천에서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 원리로 지배되어 원한이 생겼으며 상도가 무너지게 됐음을 밝히고 있다. 선천세상이 상극의 원리로 지배되었다는 것은 음양의 원리가 상극적이었으며 이에 따른 만상만물의 시비로 많은 문제점이 선천에서 도출됐음을 알수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¹⁹⁾

이처럼 음양이 상극적임으로 인해 음양에서 파생된 오행²⁰⁾도 역시 상호간 상극성이 존재하게 된다.

우주를 지배하는 근원적 양의인 음양이 상극이고 음양과 밀접한 오행이 상극이면 음양의 원리로 지배되는 만물만상이 상극성을 배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음양과 오행의 상극으로 인한 시비와 대립은 결국 원한을 만들어 냈고 맺힌 원한은 삼계의 상도를 파괴해 세상에 재화와 파탄을 일으킨 것이다.

음양개념이 天地와 神人の 일에 밀접히 작용한다는 것과 선천문제가 음양관계의 균형의 파괴에서 나왔다는 점은 천지인 삼계의 궁극적 원리인 도가 음양과 밀접히 연관됨을 보여준다.

한편 음양은 대순진리의 핵심적 요지라 할 수 있는 종지와 깊은 관련됨이 주목된다. 종지는 구천상제 강세의 목적과 천지공사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도통진경을 최종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종지가 음양론을 근원적 토대로 주창되고 있는 것이다. 즉 종지의 첫째 구절인 「음양합덕(陰陽合德)」의 네 자는 「음양의 덕을 합친다」는 의미로써 우주 만물이 음양 두 기의 결합속에서 완성을 이룸을 말한 것이

19) 공사 1장 3절

20) 음양오행의 관계에 대해 「陰陽則水火而已」(제생 43절)라는 내용이 『전경』에 있고 성리대전에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性也」(『性理大全』 卷一 「太極圖」, 경문사, 1981 p. 30)라고 기록돼 있다.

며, 두 번째의 「신인조화」 역시 승화된 후천사상으로써 「신은 음으로 인간은 양으로」²¹⁾ 조화되는 음과 양의 두기의 결합관계를 또한 보인 것이다.

Ⅲ. 道通眞境의 條件

1. 解冤과 調和

도는 삼계에 모두 통해 작용한다. 삼계에 도가 통하기 위해서는 원이 해소되어야 한다.

常道가 무너지고 재화와 참극이 일어났던 선천의 문제는 음양관계의 상극으로 생긴 원한에서 야기됐다.

이것은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공사 1장 3절) 따라서 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선천의 현실은 극복될 수 없으며 도통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어떠한 원과 한들이 삼계에 일어났는지를 알아보자.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冤 발생의 최초의 원인을 역사기록속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丹朱의 원으로 서술된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冤의 역사의 첫 장인 堯의 아들 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蒼梧에서 崩케 하고 두 왕비를 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 (공사 3장 4절)

21) 『人爲陽 神爲陰』 (제생 43절)

『有神有人 神陰人陽』 (교운 2장 42절 ; 『陰陽經』)

삼계내에 어떠한 원들이 존재하는지를 典經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신분제도하에서 나타난 원이 있다. 이것은 또한 신계측면에서 보면 선령신의 원이 된다.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다르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교법 1장 9절)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에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 (교법 1장 10절)

兩班과 賤人, 嫡子와 庶子라는 신분제도하의 名分과 區別로 인해 천인, 서자 계층에 원과 척이 맺히게 되었다. 九天上帝께서 大學校 公事를 보시고²²⁾ 배우지 못한 천민계층인 巫堂에게 처음으로 敎를 전해 해원을 해준 점에서 천민들의 배우지 못한 원이 존재함을 알수 있다.²³⁾

男尊女卑의 사회적 관습속에서 싸여온 원도 있다.²⁴⁾ 관직의 高下에서 야기된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도 있다.²⁵⁾ 선천시대 도를 닦았으나 道通을 하지 못한 인간의 원도 존재한다.²⁶⁾ 인간계에서 소원을 이

22) 교운1장 27절

23) 상제께서 김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고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 하시고 경학을 시켜 무당 여섯명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의 각자 앞에 청수를 떠 놓고 그것을 향하여 사배를 하게 하고 시천주 세번을 제각기 따라 읽게 하셨도다. 이것을 끝내고 그들의 이름을 물은 다음에 각자로 하여금 청수를 마시게 하니 이것이 곧 복록이다. 이것이 해원시대에 접어들어 맨 먼저 천한 사람들에게 교를 전하신 것이었다. (교운 1장 32절)

24) 후천에는 그 닦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교법 1장 68절)

25) 공사 1장 25절

26)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루지 못하고 죽은 인간들의 원도 나타난다. 甲午東學亂에 참여했다가 죽은 동학농민군들의 원이 逆도가 됨을 볼 수 있다.²⁷⁾ 인물에 대한 원으로 崔益鉉, 朴泳孝, 全明叔, 崔水雲 그리고 秦始皇의 원도 典經에 등장한다.²⁸⁾ 신계 신명의 원도 삼계를 채웠다.²⁹⁾ 원과 통하는 개념으로 국가간의 척과 한도 등장한다.

상제께서 어느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감당을 못할 것이다.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제는 十四일이요, 하제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 1장 34절)

27) 상제께서 十二月에 들어서 여러 공사를 마치고 逆도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하셨도다. 경석, 광찬, 내성은 대흥리로 가고 원일은 신 경원의 집으로 형렬과 자현은 동곡으로 떠났도다. 상제께서 남아 있는 문 공신, 황 응종, 신 경수들에게 가라사대 “경석은 誠敬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고 일러주시고 또 “본래 동학은 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명이다.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逆도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십 이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 하시고 종이에 글을 쓰시며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훗날에 보라. 금전소비가 많아질 것이며 사람도 갑오년 보다 많아지리라. 풀어두어야 후천에 아무 꺼리낌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맺으셨도다.(공사 2장 19절)

28) 상제께서 司命旗를 세워 전 명숙과 최 수운의 원을 풀어주셨도다. 상제께서 避老里 李化春의 집에 이르셔서 그에게 누런 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뒷산의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남쪽 양달에 있는 황토를 파오게 하고 백지 녀 장을 청 홍 황의 세 색깔로 물들여서 모두 잇고 베어 온 소나무의 한 윗가지에 달게 하고 백지 석장에 각각 시천주를 쓰고 그 종이 석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잇고 또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 나무를 집앞에 세우시니 마치 깃대와 같은지라.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곳에서 전 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司命旗가 없어서 抱恨하였나니 이제 그 기를 세워주고 해원케 하노라.” 다시 상제께서 사명기 한 폭을 지어 높은 소나무 가지에 달았다가 떼어 불사르시고 최 수운을 해원케 하셨도다.(공사 3장 2절)

이외에 공사 2장 22절.

29)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 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 하노라.(공사 1장 29절)

으니 그들에게 一時天下統一之氣와 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 샅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공사 2장 4절)

또 지난 임진 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가지의 한만 맺었으니 소위 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一한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한이요. 세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三한이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一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 함으로써 二한이 풀리고, 세째로는 枯旱三年으로 白地江山이 되어 民無秋收하게 됨으로써 三한이 풀리리라.(예시 74절)

한이 얼굴의 추함에서 나타나고 부친으로서 자식의 슬픔에서 나타난 애원이 나타난다. 30)

위와같은 원을 없애는 해원은 선천의 문제속에서 재겁과 비겁에 싸인 우주를 구제하기위한 것으로 인류를 파멸에서 건지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위해서 필요하다.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冤의 역사의 첫 장인 堯의 아들 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蒼梧에서 崩케 하고 두 왕비를 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공사 3장 4절)

또한 해원의 필요성은 결국 양자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一人의 원이라

30) 권지 1장 10절

하더라도 천지의 기운을 막을 수 있다는 원의 심각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느니라.(교법 1-31) 31)

또 동화신명의 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역도에 걸려 후천에서의 정사가 어지러워질 수 있으므로 해원공사가 요구된다.³²⁾

신분적 구별과 명분을 없애고 후천선경을 열기위해서 해원이 요청된다.

그런데 해원은 神道를 근본으로 度數의 整理³³⁾, 神明의 造化를³⁴⁾ 따라 진행된다.

조화를 해원과 연관해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선천에서는 음양의 불균등, 불평등에서 소외계층들이 차별화되어 원과 척이 맺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원으로 어느 일방에 원이 없이 질서체계가 정립될 때 調和가 가능하다.

해원공사를 통해 원과 척을 해소함으로써 정음정양의 균등한 음양관계가 확립되어 調和를 이룰수 있으며 調和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해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神界의 調和는 명부착란으로 인한 원의 해소로 시작되며 명부 神들

31) 상제의 권능으로 자연의 조화를 일으키는 일도 일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방해받음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己酉년에 들어서 埋火 공사를 행하고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 임으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 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공사3장 29절)

32)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 (교법 1장 10절)

33) 拙稿 典經에 나타난 新元의 意味, 대순사상논총 제1집, 대순사상학술원, 창문사, 1996, 421쪽, 429쪽

34) 拙稿 典經에 나타난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 제3집, 대순사상학술원, 창문사, 1997, 438쪽 ~ 444쪽. 이하 본문 해원공사 부분은 내용은 2,3집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의 조정은 人界문제 해소의 근원이다.³⁵⁾ 또한 神과 관련이 있는 天과 地의 관계에서 地는 음이 되고 음인 地는 선천시대에 양인 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하된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 地의 위상이 회복된다.³⁶⁾ 人界의 調和를 이루는 해원공사는 불평등 불균형하에 존재해 왔던 계층들을 해원케하는 공사를 통해 체결된다.³⁷⁾ 男과 女로 볼 때 음이 되는 여인의 공덕을 세우는 공사를 봄으로써 남존여비라는 억음존양의 논리가 무너진다.³⁸⁾ 또한 사회적 신분적으로 억눌려 원과 척을 갖고 있던 천인계층에 대한 해원 공사도 이루어졌다.³⁹⁾ 이와 함께 조선조 말기 관직의 고하에서 나타나는 신분계층간의 대립 속에서 하급 관직에 있는 계층원들의 원도 풀린다.⁴⁰⁾

이처럼 해원을 통해 음과 양이 정음과 정양이 성립되고 神界와 人界의 원이 해소됨으로써 相生속에 調和가 구현돼 神人調化의 기틀이 이룩되며 이 과정에서 신명의 조화도 있게 된다.

한편 후천 정음정양공사는 구체적으로 남성 종도들이 점을 찍어 부인의 수를 표시하는 내용에서 나타난다.

『상제께서 어느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응종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점을 찍었는데 「아홉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 구녀란 말은 알 수 없도다,」고 말씀하시고 내성에게 「팔선녀란 말이 있어서 여덟 점을 쳤느냐,」고 묻고 응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후천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고 되물으니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 둘씩이나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상제께서 다시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을 건너시고 공신을 돌아보면서 「경석은 열 둘씩이나 원하

35) 공사 1장 7절 참조

36) 교법 1장 62절 참조

37) 교법 1장 67절 참조

38) 공사 1장 32절, 교법 1장 68절 참조

39) 교법 1장 9절 참조

40) 공사 1장 25절 참조

는 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乾坤이있을 따름이오 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건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文王의 도수와 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 주셨도다. (공사 2장 16절)

이것은 一陰과 一陽이 대비돼 道를 이루어 정음과 정양으로 바르게 된 (正) 음양을 상합시켜 완성의 원리를 우주에 작용케해 후천선경의 기틀을 세우게 됨을 보여준다.

또 조화를 이루기위한 정음정양하의 공사는 水氣공사와도 연관된다. 수기를 돌림에 있어서 음양이 정음정양으로 고르게 균형을 이루어야됨을 알 수 있다.⁴¹⁾

수기는 오행기운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기운으로 선택되어져 천하무상극 지리의 상생 원리를 만드는 근원의 기로 작용한다.⁴²⁾ 수기가 천지를 채우는 근원의 기로서 작용하므로⁴³⁾ 상제께서도 수기를 돌리는 공사를 행하시게

41) 또 어느날 상제의 말씀이 계시었도다. “이제 천하에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하시고 避亂洞安氏齋室에 가서 우물을 竹가지로 한 번 저으시고 안 내성에게 “음양이 고르지 않으니 재실에 가서 그 연고를 묻고 오너라”고 이르시니 그가 돌아와서 그대로 아뢰이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뎀 기운이 있도다. 행랑에 가보라”고 다시 안 내성에게 이르시니 내성은 가보고 와서 “행랑에 行商하는 양주가 들어있나이다”고 아뢰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재실 청상에 오르셔서 종도들로 하여금 서천을 향하여 萬修를 크게 한 사람이 그것을 올리니 상제께서 책의 중간을 갈라 “詩云伐柯伐柯其則不遠이라. 내 앞에 보는 것이 어길 바 없으나 이는 도시 사람이오. 不在於近이라. 목전의 일만을 쉽게 알고 심량없이 하다가 未來之事가 같지 않으면 그 아니 내 恨인가”를 읽으시니 뇌성이 대발하며 천지가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화약내가 코를 찌르는도다. 모든 삶이 혼몽하여 쓰러지니라. 이들을 상제께서 내성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셨도다. (공사 3장 21절)

42) 교운 1장 66절 : 현무경 2면

43)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놓고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면데 있지 않고 자기 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海島真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雷聲 普化 天尊 上帝이시니

된다.⁴⁴⁾ 여러 가지 공사에 청수가 쓰여지고⁴⁵⁾ 강물기운이 돌려져 흉년을 없애며⁴⁶⁾ 금강산의 겁기 제거에 수기가 이용된다.⁴⁷⁾

또한 수기는 천하의 땅기운을 돌려서 지기를 통일시키는 기가 되어⁴⁸⁾, 반목쟁투를 없애고 평화를 이룩하는 작용을 한다.⁴⁹⁾ 수기가 돌 때 만국사람들이 언어상 통일을 이루고 세계는 의사소통의 벽을 넘게 되어 만국통일의 토대가 형성되게 된다.⁵⁰⁾

요컨대 수기는 대순사상에서 정음정양과 관련돼 調和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후천선경의 토대를 이루게 하는 우주 기의 근원적 원동력으로 삼계를 채우며 생명의 기로 작용해 지계의 통일기운이 되고 나아가 인계의 사상, 언어의 통일등을 이루어 조화의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인 통일의 지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⁵¹⁾

이상에서 宗旨중 正陰正陽은 도수의 정리와⁵²⁾ 神人調化는 신명의 조화와 밀접한 관련성 속에 해원과 연관됨이 나타난다.

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 고 말씀하셨도다.(교운 2장 55절)

44) 『이제 천하의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공사 3장 21절)

45) 공사 2장 13절, 공사 2장 27절, 권지 2장 10절

46) 『이곳이 운산이라. 운암강물은 김제 만경 들판으로 돌려도 하류에서는 원망이 없을 것이니 이 물줄기는 대한불갈(大旱不渴)이라. 능히 하늘을 겨루리라.』 (공사 1장 28절)

47) 『상제께서 양피를 손가락 끝에 문혀 일만이천시란 글자에 바르시니 양피가 다한지라. 상제께서 사기를 김제로 옮겨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김제 수각 임상옥이 왔기에 상제께서 청수를 담던 사기그릇을 개장국에 씻어 그에게 주시니라.』 (공사 2장 14절)

48) 『상제께서 「지금은 천지에 수기가 돌지 아니하여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으니라. 이후에 수기가 돌 때 땅기운이 발하리라.」 고 말씀하셨도다.』 (공사 3장 20절)

49)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반목쟁투하느니라.』 (공사 3장 5절)

50) 『천지에 수기가 돌 때 만국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통어하게 되나니...』 (예시 51절)

51) 이것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쟁투하니라.』 (공사 3장 5절)와 『지금은 천지에 수기가 돌지 아니하여... 이후에 수기가 돌 때 땅기운이 발하리라.』 (공사 3장 20절)를 보면 나타난다.

이밖에 拙稿 「선천 현실에 대한 천지공사론」, 「大巡論集」,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PP 232~236 참조

52) 공사2장 16절

2. 合德과 造化

음양의 調化는 음양이 정음정양으로 합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음과 양이 존재와 상대관계에 있어 서로 고르게 되어 균등히 화합되고(調和). 이러한 상태하에서 음양이 우주간에 형이상학적으로나 형이하학적으로 실제적 가치를 이루기위해 각각의 작용을 하거나 음양이 상호 합덕된 상태에서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調化의 의미를 調和와 造化를 합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調和는 음양관계로 대비해보면 원이 해소돼 正陰正陽이 된 상태로 陰陽相生관계가 구축된 경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양이 正해진 상태나 相生관계만으로 이상세계인 후천선경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어 만들어 현현화되는 造化의 원리가 있을 때 음양합덕의 원리는 구체화된 후천선경을 가시화 시킬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음정양, 음양상생이 調和의 토대로 선천의 문제점을 조정하는 단계라면 造化의 원리는 선천을 뛰어넘어 후천선경을 만들어 가는 구체화된 음양합덕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이점은 음양인 神과 人이 화합으로 서로 합덕돼 통합으로써 天地의 道와 神人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룬다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신과 인간이 화합해서 만사를 이루고 신과 인간이 합쳐져 모든 공을 이룬다. 신명은 인간을 세우고 인간은 신명을 세운다. 음양이 서로 합쳐지고 신인이 서로 통한후에 天道가 이루어지고 地道가 이루어진다. 神事が 성공하고 人事가 성공한다. 人事가 성공하고 神事が 성공한다.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娛人 人娛神明 陰陽相合 神人相通然後 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⁵³⁾

神과 人이 각각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화합을 할 때 만사백공을 이루고 음양이 합쳐지듯 신인이 서로 통해야 天·地의 道와 神·人의 事が 성공됨을 알 수 있다. 곧 음양조화의 결과를 天과 地 그리고 神과 人에 비추어 강조한 것으로 음양합덕의 원리하에 궁극적 목표인 후천선경이 건설됨을 보

53) 교운 2장 42절

인 것이다.

또한 음양이 정음정양화돼 상생관계로 존재해 우주적 원리로 造化를 창출함은 음양합덕으로 시작해 도통진경(후천선경)으로 맺어지는 종지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음양합덕은 종지의 첫째 대목으로 형이상학적으로나 형이하학적으로 우주에 작용하여 종지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가능케하는 근본이며 모든 종지의 밑바탕이 되는 포괄적 원리이다.

神人調化에서 신은 음, 인은 양이 되어 調和롭게 일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은 음양의 調化를 말한 것이다. 해원상생에서 해원을 한다는 것은 음의 원을 풀어 음양이 상극에서 벗어나 정음과 정양이 되어 합덕함으로써 인류가 소망하는 이상세계의 초석을 놓아 음양이 서로 상생한다는 것이다. 도통진경은 음·양이 서로 정음·정양으로 상생속에 調化의 원리로 합덕돼 한 세계를 이룬 것으로 상제께서 구현하신 후천선경이다. 정음정양하에 음양합덕으로 도통진경화 된 후천선경의 실상은 다음 전경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예시 80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범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예시 81절)

결론적으로 음양調化는 음양 사이에 원을 풀어 없애 정음과 정양을 만든 후 음양을 상생원리속에 평등 존중 화합케해 調和의 경지를 구축함으로써 상제께서 역사하신 천지공사의 원리대로 우주의 일을 현실세계속에 하나하나 造化 구현시키는 원리이다.

그리고 調和와 造化의 원리는 선천문제의 해결이 선행될 때 이루어진다. 선천문제는 음양관계와 관련이 있어 결국 음양 상극으로 야기된 冤⁵⁴)으로 삼계가 겁액에 빠져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造化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의 해소와 음양의 올바른(正) 관계가 정립되어야함을 알수 있다. 즉 해원을 통해 음양관계의 양자가 정음정양화 되어 調和해야 되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신과 인의 造化는 정음정양화된 음양을 調理하고 統制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음양의 합덕은 음양調化의 원리하에서 현실속에 역동적이며 실제화된 우주를 만들어 완성된 경지인 후천선경을 이루게 된다. 우주 운행 원리인 음양이 바르게(正) 상생과 평등속에 화합을 이루어 천지인 삼계에 造化의 이치가 작용할 때 도통진경화된 후천선경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계에서 도통군자에 의해 造化되는 成事在人の 면을 보기로 한다. 삼계의 운행은 시운에 따르는 것으로 천지공사에 따라 새 질서체계가 삼계에 열리게 된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장 56절)

천과 지를 높이던 선천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시운이 변하여 人을 존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열린다. 천존과 지존은 천지의 신을 높여 숭배하는 것이다. 이제 인존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신과 인의 관계에 있어 삼계 운영의 주도층이 人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개혁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모든 면에서 지상세계의 구조적 체계질서의 변화속에 인간의 정신적 완숙과 삼계의 개조를 통해 인간존귀의 장이 창출된다.

그리고 후천의 인존시대에서 특히 신과 인의 관계에서 주목될 점은 天이 일을 성공시켜오던 선천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제 人은 成事의 단계이고

54) 이것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공사 1장 3절)라는 부분에서 원한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신은 일을 모의해 추진하는 위치이다.

“선천에는 謀事가 在人하고 成事는 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교법 3장 35절)

선천에 신이 일을 이루던 상황에서 인간이 일을 이루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일을 이룬다는 면에서 주도층이 인계로 바뀌어 앞으로 인계에서 출현할 道通君子를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져가는 것임을 말한다.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上有道昌 中有泰仁 下有 大甕” 이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45절)

이것은 道가 後天에서 道通君子를 중심으로 신,인의 調和속에 造化를 하는 차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지할 점은 일반적으로는 人이 성사를 하고 신이 모사를 하지만 삼계를 운용하는 중심은 上帝의 權能하에 神界 神道の 틀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⁵⁵⁾

그러면 성사재인의 가능성이 되는 道通을 보면 도통은 상제께서 밝혀주는 것으로⁵⁶⁾ 대두목을 통해 도통줄이 전해지며⁵⁷⁾ 상제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55)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 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41절) 라는 내용에서 神道(도통신)에 입각 人의 心身수도의 결과가 도통으로 나타남을 알수 있다.

56)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 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 1장 34절)

57)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 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41절)

아니다. 道通은 先靈神과 儒佛仙 道通神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⁸⁾

그리고 도통에 있어 人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도통하는 방법에 따라 心身을 닦는 것⁵⁹⁾이다.

결국 도통은 상제님과 대두목 그리고 神과의 관련성속에 各人이 心과 身을 닦은 대로 받는 것이다.

人이 心을 닦아 도통을 용사하는 造化의 차원은 ① 만사를 임의로 행하고(상등) ② 용사에 제한이 있으며(중등) ③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여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는(하등) 세가지이다.⁶⁰⁾

그리고 위의 ①②③의 경우에서 上·中·下의 차이는 神의 응함에 관계하는 것임을 다음 구절들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교법 2장 17절)

58)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가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교운 1장 33절)

59)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가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교운 1장 33절)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교운 1장 34절)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교운 1장 41절)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음으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고 하셨도다.(교운 1장 40절)

60)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에시켰고 석가는 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제는 十四일이요, 하제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 1장 34절)

상제께서 박공우가 아내와 다투고 구릿골을 찾아왔기에 별안간 꾸짖으시기를 “나는 독하면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하면 천하의 선을 다 가졌노라. 네가 어찌 내 앞에 있으면서 그런 참되지 못한 행위를 하느냐.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 하셨도다.(교법 1장 42절)

인간의 공부와 마음의 닦여진 정도의 기국을 따라 神이 응하여 운수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神이 인간에 관계하느냐에 따라 도통의 차이가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調和는 인간이 마음을 닦아 神과 調和속에 공존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며 造化는 인간이 마음을 써 人界일을 하거나 神을 용사시켜 天地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神人調化로 요약된다.

神人調化는 인간 心身の 닦여진 정도에 따라 적절한 神이 調和를 이뤄 造化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때 造化의 면에 있어서는 인간이 응한 神을 부러 권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神人調化에서 마음과 神의 대응, 인간과 神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인의 도통에 의해 神을 부러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인간 마음에 관계됨을 다음 글은 잘 보여준다.

天이 쓰는 것과 地가 쓰는 것 그리고 人이 쓰는 것이 통제가 마음에 있다. 내마음의 樞機와 門戶와 道路는 天地보다 더 크다.(天用地用人用 統在於心 吾心之樞機門戶道路 大於天地) (행록 4장 44절)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장 56절)

윗글은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통해 天·地·人 三界의 용사가 통제되며 이것은 마음이 天·地·人에 존재하는 神들을 통제해 造化해 나감을 시사한다.

또한 神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에 속한 마음이 天·地·人·神에 있어 주체적 중심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천지의 중앙이 마음이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에 있어 몸이 마음에 의거한다.(天地之中央 心也 故東西南北 身依於心) (교운 1장 66절, 현무경 3면)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 응하는 神에 善神과 惡神이 있으니 매사에 善한 것을 스승삼고 惡한 것을 고치는 修心의 중요성도 찾을 수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의 樞機이고 門戶이고 道路이다. 樞機를 열고 닫고 문호를 출입하고 도로를 왕래하는 신이 혹은 선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하다. 선한 것을 스승삼고 악한 것은 고쳐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 出入門戶 往來道路神 惑有善 惑有惡 善者師之 惡者改之) (행록 3장 44절)

위 내용에서 인간의 道通은 인간이 삼계내의 神을 움직여 造化를 이루는 차원임을 또한 알 수 있다. 인간의 마음으로 造化되는 일면을 다음 글에서 찾을 수 있다.

공우를 데리고 정읍으로 향하실 때 상제께서 “마음으로 천문지리를 찾아보라” 하시기에 공우가 머리를 숙여서 풍운조화를 생각하니라. 상제께서 별안간 공우를 돌아보시며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으니 다시 찾아라.” 이르시니 그는 놀라서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그릇되게 생각한 것을 뉘우치니라. 그는 다시 천문지리를 마음으로 찾다가 정읍에 이르니라. 이날 밤에 상제께서 눈비가 내리는 것을 내다 보시면서 공우에게 “너의 한 번 그릇된 생각으로써 천기가 한결 같지 못하다.”고 책망하셨도다. (공사 1장 33절)

3. 相 生

해원과 정음정양으로 선천 상극이 해소된후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생의 도가 이루어져야한다.

상극을 살펴본 후 상생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상극의 弊害는 묵은 하늘로 표현되는 선천 운행원리의 殺性과 그로 인한 피해를 설명한 부분에서 역시 찾을 수 있다. 선천 묵은 하늘이 사람을 죽이는 공사를 보았다는 곳에서 선천 상극 참혹상의 일면을 드러낸다. 또한 천지공사로 후천선경을 열고자 하는 九天上帝의 살과 종도(박공우)의 살을 원하는 묵은 하늘의 의도에서

묵은 하늘의 살기와 잔인성을 볼 수 있다.⁶¹⁾

이러한 묵은 하늘이 만든 의식 제도 관습이 천하를 재검과 비검에 빠지게 했던 것이다.

세속에 전하여 내려온 모든 의식과 허례를 그르게 여겨 말씀하시길 이는 묵은 하늘이 그르게 꾸민 것이니 장차 진법이 나리라 하셔도다.(교법 1장 18절)

상극에 의해 생기는 是非와 爭鬪의 실례는 선천에서 雄霸의 術과 英雄時代로 나타났다.⁶²⁾

또한 그속에서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셔도다.”(교법 3-34)와 같이 下克上이 일어났다. 이러한 선천의 현실속에서 원과 한이 삼계에 쌓이게 된 것이다.

음양을 우주속에서 존재론적으로 정음정양화시켰을 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음양의 상대적 존재성을 상생으로 서로 작용케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상극에 따른 선천의 재화를⁶³⁾ 없애는 방법은 음과 양 상호간에 해원이 이루어져 원이 없는 정음과 정양이 이루어진 상태하에서 가능하다.

『전경』은 상생원리를 이상세계(후천선경)건설의 절대적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⁶⁴⁾

61) 공사 1장 11절, 공사 3장 13절

62) 시속에 어린 학동에게 통감을 가르치는 풍습이 생겼나니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시비로써 성품을 기르려는 것이니 응패의 술이로다. 어찌 합당하다 하리오.(교법 2장 25절)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교법 2장 55절)

63)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공사 1장 3절)

64) 이외에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相生의 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相生의 道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공사 1장 3절)

또 응패의 술로 재화를 받아온 세상을 고치는 도로서 상생이 근본원리가 됨을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의 도와 응패의 술을 말씀들었도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교운 1장 16절)

에서 볼수 있다.⁶⁵⁾

또한 상생관계는 음양오행의 관계에서 水火金木이 때를 기다려 성공해 水가 火에서 생성(水生於火) 천하무상극지리를 이룬다는 「현무경」의 오행상생 화공사와 통하며 오행상생화 공사는 음양상생을 이루는 기저가 된다.⁶⁶⁾

水가 火에서 생성되고 火가 水에서 생성된다. 金이 木에서 생성되고 木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흥포된 바이니라.』(예시 6절)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예시 8절)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예시 9절)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예시 10절) 등의 내용이 있다.

65)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 (교법 3장 34절)

여기에서 강륜은 사제간의 상생원리에 따른 것이다.

66) 拙稿 「선천 현실에 대한 천지공사론」, 「大巡論集」,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P 232

이 金에서 생성된다.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제생 43절)

水火金木이 때를 기다려 성공하며 水가 火에서 생성된다. 그러므로 천하에 상극의 이치가 없다. (水火金木 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 (교운 1장 66절, 현무경)

위에서 水와 火, 金과 木은 상극이었으나 상극에서 상극이 나오도록 공사가 처결되어 결국 상생의 원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음과 양이 상대적으로 상생을 이루어야 되는 면은 인간 상호간의 사회질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구천상제께서는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大大細細天地鬼神垂察』 (공사 3장 40절)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君과 臣, 父와 子, 師와 學은 상호 상생관계가 무너져 어느 한쪽이 없게 되면 국가, 가정, 학교의 기반이 존립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음양적 관계속의 양자가 서로 상생해야 됨을 알 수 있다.

君·臣, 父·子, 師·學관계에서는 일방만이 존재해서는 세상에 人도를 세우고자 하나 성립될 수 없음을 밝히셨는데 이것은 음양 양자사이에 상생의 원리가 작용해야 국가 사회적으로 윤리도덕이 바로서 음양합덕의 올바른 체계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생은 서로를 生하게 하는 것으로 他者の 生을 좋아하는 好生の 德과 통하는 원리이다.

호생의 덕은 구천상제의 유소년기의 성품을 보여주는 『상제께서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원만하시고 관후하시며 남달리 총명하셔서 못사람들로부터 경대를 받으셨도다. 어리실 때부터 나무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곤충도 해치지 않을 만큼 호생의 덕이 두터우셨도다.』 (행록 1장 11절) 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好生之德으로 濟生醫世의 聖人の 道로 억조창생을 살리며, 相生의 道가 구현되어 道通眞境을 만들어 결국 선천 상극을 극복하고 化民靖世를 이룸을 볼 수 있다.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의 도와 응패의 주는 술을 말씀들었도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교운 1장 16절)

4. 開闢과 原始返本

도통진경은 天地公事로 이루어지며 後天을 가리킨다.도통진경과 같은 의미인 용어는 靑華五萬年龍華仙境 地上天國, 後天仙境등이 있다.도통진경은 개벽과 원시반본을 따라 眞法이 구현되는 이상세계이다.

도통진경은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는 개벽으로 열리며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예시 30절)의 내용처럼 천지성공의 때를 맞춰 時運的으로 도래하는 것이다. 개벽은 선천 개벽과 구천상제께서 開闢長으로 주도하는 천지공사에 의한 개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開闢長을 말함이니라.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를 마치신 辛丑년 겨울에 창문에 종이를 바르지않고 부엌에 불을 지피지 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전폐하고 아흐렛동안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도다. 이 동안에 뜰에 벼를 말려도 새가 날아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집 앞으로 통행하기를 어려워 하였도다.(공사1-1)

구천상제께서 개벽장으로 행하는 개벽은 전무후무한 개벽으로 후천의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는 것이다.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 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공사1-2)

그리고 후천을 여는 개벽은 선천 개벽후에도 삼계에 계속되어온 수한과 난리의 겹재를 없애기 위한 것이며 개벽의 시대에는 병겁등이 있게 되므로 인간적 차원에서는 구천 상제에의해 전해지는 새로운 공부를 통해 겹재를 이겨 넘어가야 됨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張良, 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水旱과 난리의 겹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법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겹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공사1-36)

천지가 성공한다는 것은 이상세계가 이룩된다는 것으로 개벽을 통해 도통진경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 개벽은 西神이 司命하는 것이며⁶⁷⁾ 만유를 제재해 모든 이치를 모아 이루는 것으로 만물의 성숙과 멸망의 판가름을 하는 과정이다. 또한 후천을 여는 개벽은 신의 위엄속에 인간의 후천에서의 生死를 결정짓는 과정이 있게 된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

67)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 姜一淳 湖南西神司命(행록 5장 33절)에서 서신사명이 강일순(강증산) 구천상제와 관계됨을 볼 수 있다.

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30절)

개혁은 선천 삼계내의 모든 문화, 사상등을 마무리하고 총체적으로 종합
해 서신사명의 원리하에 후천을 여는 역사이다.

그리고 개혁의 이치는 『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치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
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
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73절)의 내용처럼 神道로써
통제된다.

신도는 선·불·유의 법술을 포함한 것으로 삼계의 모든 운행과 질서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원리이다. 따라서 개혁은 서신이 제재하는 가운
데 우주적 차원에서 신계 天上公廷과 인계 天地公廷을 통해 전개되며 귀신
과 함께 새로운 眞理가 이룩돼 나간다.⁶⁸⁾

도통진경을 여는 개혁은 서신사명하에 신도의 기틀아래 삼계 전체에서 진
행되며 『개혁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행록 4장 17절)라는 구절
처럼 원시반본의 원리와 관련을 맺고 있다.

68)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
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가
기 닭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교운 1장 33절), 상제께서 하루는 김형렬
에게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천지를 개혁하고 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
생을 널리 건지려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
으로 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말고 죄를 멀리
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天地公庭에 참여하라.”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주
어 신명의 회산과 聽命을 참관케 하셨도다.(예시 17절), 김 광찬과 신 원일이 상
제를 모시고 계시던 정미년 정월 어느날 상제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교운 1장 19절)

원시반본은 최초의 시작을 근원과 원형으로 삼는 것과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성의 원시인 姜姓이 일을 맡았다는 내용과 이제 조상과 자손의 혈통줄이 바로 잡히며 요순의 도가 다시 나타난다는 구절 등에서 원시와 반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신년 四월 어느날 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風采.風身.風骨 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오. 그 다음은 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 하셨도다.(행록 4장 17절)

류찬명이 어느날 상제를 모시고 있을 때 상제로부터 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하는도다.(교운 1장 46절)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換父易祖와 換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교법 3장 42절)

또한 정치와 교화에 있어 원시반본도 보인다. 그것은 정치와 교화를 함께 겸비하던 神聖시대의 구조를 다시 재현해 君과 師의 위치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옛적에 神聖이 立極하여 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統制 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原始返本이 되어 君師位가 한갈래로 되리라.(교법 3장 26절)

도통진경을 여는 개벽시대를 맞아 정치·사회적으로 君師位가 일체로 되어 요순의 도가 재현되고 조상과 자손사이에도 원시반본이 되어 착란이 있던 가문의 혈통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원시반본된 세계는 도통진경의 세계와 통하는 것으로 원시반본의 원리하에서 천지인 삼계의 만물만상의 근원과 시작이 정비, 조정되어 도통진경의 초석을 세우게 된다.

이를따라 도통진경의 후천은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80)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81)

는 내용처럼 천지공사의 度數와 時運을 따라 전개됨을 典經은 보여주고 있다.

IV. 結 語

宗旨을 구성하는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은 道通眞境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도통진경은 종지 구성에 있어서 마지막 내용으로 앞의 종지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종합한 결론이며 목적인 것이다. 종지의 다른 개념들은 도통진경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배경이며 조건이 된다.

本考는 이점을 論外로 해서 도통진경을 연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필자의 기존 연구를 재구성하고 開闢과 原始返本의 의미등을 추가해 道通眞境의 條件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대순사상에서의 道는 삼계를 총체적으로 종합해 통괄하는 神道를 가리키며 신도는 선천 유불선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우주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는 것이다. 신도는 일차적으로 신의 造化속에 일이 용사돼 인계로 천명과 신교가 이루어져 나가는 구조이다. 이속에서 천계 지계 인계의 신과 인간은 상호 긴밀히 유기적 관계하에 신도의 원리를 따라 존재한다.

道는 陰陽의 원리하에 삼계에 만물만상을 존재 소멸케 한다. 天과 地, 神과 人이 음양으로서 삼계의 질서를 형성시켜나가므로 두툯지경을 마득기위해서

는 음양인 天地,神人の 관계가 어떠한냐가 중요하다.

이상의 신도와 음양의 원리하에 도통진경을 이루기위한 목적으로 본고의 3장 1절의 해원과 조화에서는 相克으로 불균형 불평등 관계였던 음양을 모든 만상만물의 완전한 해원을 통해 正陰正陽化시켜 調和의 토대를 형성시켜야됨을 살펴보았다.

습德과 造化에서는 정음정양으로 구축된 음양 兩者의 고르고 和平한 관계 속에 음양이 습德되어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하는 造化작용이 있게 됨을 언급했다.또한 相生에서는 선천 폐해의 원인이 상극이므로 상극을 五行相生化 등으로 해소해 도통진경의 질서인 相生의 道가 好生之德과 연관됨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통진경을 여는 조건으로 開闢과 原始返本에서, 개벽이란 구천상제에 의해 주도돼 천지성공의 時運에 따른 西神司命하에 성숙과 심관의 과정이라는 것과 원시반본은 개벽의 사상적 틀의 일단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삼계내에서 모든 만상만물의 시원과 원형의 근본으로 돌아가 후천선경의 기저와 출발을 시작하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장속에서 새로운 전대 미증유의 後天仙境은 구천상제의 權能과 豫智하에 地上天國을 가시화 시키며 도통진경으로 우주속에 펼쳐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 『典經』, 大巡眞理會 教務部, 1974
- 『大巡指針』, 大巡眞理會 教務部, 1894
- 『大巡眞理會要覽』, 大巡眞理會 教務部, 1969
- 『大巡論集』, 大巡眞理會 教務部, 1992
- 大巡思想의 現代의 理解, 大巡宗教文化研究所, 1988
- 甌山의 生涯와 思想, 大巡宗教文化研究所, 1979
- 『大巡思想論叢』 제 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 『大巡思想論叢』 제 2집, 大巡思想學術院, 1997
- 『大巡思想論叢』 제 3집, 大巡思想學術院, 1997
- 『大巡思想論叢』 제 4집, 大巡思想學術院, 1998
- 大漢和辭典, 諸橋轍次著, 大修館書店, 1984
- 『漢韓大辭典』, 民衆書林, 1990
- 鄭鎮洪, 宗敎學 序說, 전망사, 1980
- 酒井忠夫 外 지음, 崔俊植 옮김, 『道敎란 무엇인가』, 民族社, 1990
- 都玟淳 지음, 『道家思想과 道敎』, 범우사, 1994
- 小柳司氣太 지음, 金洛必 옮김, 『노장사상과 도교』, 시인서, 1994
- 金炯孝, 『東西哲學에 대한 主體的 記錄』, 고려원문화총서, 1985